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중국 후난성 인대 우호협력을 위한 -
전북자치도의회대표단 중국 방문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기 간 : 2025. 12. 3.(수) ~ 12. 7.(일) / 3박 5일
- 방문지역 : 중국 후난성 일원
- 출장인원 : 8명(의원 3, 직원 5)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의원 (3명)	의장	문승우	남	공무국외출장 총괄 (교류 및 협력의제 발굴)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염영선	남	우호협력분야 세부협약 결과보고서 총괄
	문화안전소방위 부위원장	김성수	남	주요현장 시찰지 현황 파악 및 분석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사무처 직원 (5명)	총무담당관	한동철	남	공무국외출장 총괄
	주무관	김용호	남	자료작성 및 수행
	주무관	박병복	남	사진 촬영, 홍보지원
	주무관	윤여성	남	의견 지원, 자료분석
	주무관	김채원	여	기록, 예산

- 출장효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후난성 간의 교류 및 협력의제 논의
 - 주요 시찰을 통한 광역 경제권 구축, 지능형 제조업 고도화 등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접목제고 및 향후 실무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II

출장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2. 3.(수)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출발 	호남대학교 장주담도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인천 ⇨ 창사공항) ○ 후남성 현장 시찰 ① 호남대학교 방문 ② 장주담 도시군 방문(창사,주저우,상탄) 	
12. 4.(목)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남성 현장 시찰 ③ 후남 차이 생물과기 유한회사 ④ 이수전창 과학기술 유한회사(한국기업) 시찰 	후남 차이 생물과기 유한회사 이수전창 과학기술 유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남성 정협 방문·의향서 전달(모만춘 주석면담) 	
12. 5.(금)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사→장가계) (1시간 45분) 	장가계 시정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삼림공원 방문 ○ 장가계시정부 방문·면담(우원하이 시위원회 상무부장) 	
12. 6.(토)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남성·장가계 특산품(홍보) 산업단지 시찰 	후남성장계 특산품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기루 사업단 시찰 ○ 귀국(장자제 공항⇨ 인천) 23:40 ➡ 03:40 (3시간) 	
12. 7.(일)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도착(03:40) ○ 도의회 도착 및 해산 07:00 	-

① 후남성 정치협상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관 협력의제 논의

□ 방문개요

- 일 시 : 12. 4.(목) 17:00~
- 장 소 : 후남호텔 컨벤션센터 2층 대회의실
- 내 용 : 양 기관 교류협력을 위한 의견교환
- 주요내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4): 문승우 의장, 김성수염영선 의원, 한동철 총무담당관
 - 후남성 정치협상회의(5): 마오완춘, 레이밍창, 궁평상, 양치, 양홍웨이
- 각 기관장 기조연설

기조연설 : 후남성정치협상회의와의 우호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발언자	발 언 내 용
후남성 정치협상회의 마오완춘 주석	후남성 정협측에서는 다음 <u>세 가지 사항</u> 을 제안드리고자 함. ① <u>우호교류 협약을 넘어 자매결연 맺자</u> - 기존의 형식적 우호교류 협약을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자매 결연 체결을 통해 교류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 - 정례적인 고위급 상호 방문 및 정책·행정 교류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미 장가계시와 전북 부안군은 자매결연 체결하여 관광 교류 등 실질 협력 추진 중이며, 이를 광역 차원 협력 모델로 확대 기대 ② <u>경제·무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u> - 후남성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제조업·농생명·바이오·신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 기대 - 기업 간 교류, 투자 상담회,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무역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기업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 조성 제안 ③ <u>관광 교류를 위해 힘쓰자</u> - 장가계,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 등 양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산을 연계한 상호 관광객 유치 협력을 제안함. - 문화·자연·역사 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홍보를 통해 관광 교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문승우 의장

호남의 도시에서 중국 호남성을 초대·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우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① 우호교류 의향을 제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자

-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시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 양 국가 간 **정례적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입법·행정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향후 공식적인 우호협정 및 자매결연 관계로 단계적 발전을 제안드립니다.

② 광역 메가시티·산·학·연 협력 분야의 정책 교류를 강화하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메가시티 구축, 첨단 산업 혁신, 지역 인재 육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며, 장주담 도시군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후난성의 경험은 중요한 정책 참고 사례임.
- 특히 **광역 교통체계 통합, 도시 간 기능 분담,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 제안
- 공동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력 방안 마련 제안
- 이러한 협력을 통해 후난성의 선진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고자 함.

③ 경제·산업·관광·교육 등 실질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

- 경제, 산업, 관광, 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 사업 단계적 발굴·추진 제안
- 특히 **기업 교류, 대학·연구기관 협력,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 동시 도모
- 아울러 관광 분야에서는 양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확대 희망

④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지원을 강화하자

- 양 기관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여,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논의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함.

○ 세부 제안사항

발언자		발 언 내 용
후 난 성 정 치 협 상 회 의	문교위체 및 문사위원회 주임 레이밍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지역 간 문화·교육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 강조 · 청소년·학술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제안
	외사위원회 주임 궁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및 의회 차원의 교류가 양 지역 협력의 핵심임을 강조 · 경제·관광·문화 등 실질 분야 중심의 단계적 교류 확대 필요성 언급
	외사민공실 부주임 양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 차원의 교류 채널을 활성화하고,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의지 있음
	후난관광발전 투자회사 사장 양홍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가계를 중심으로 한 후난성 관광자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의 연계 가능성 제시 ·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상호 홍보 협력에 대한 기대 표명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정책 및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 필요성 강조 ·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례적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제안
	문화안전소방위 부위원장 김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난성은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발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출연기관 차원(문화관광재단 등)의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하겠음.
	총무담당관 한동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적·행정적 지원을 적극 수행하겠음.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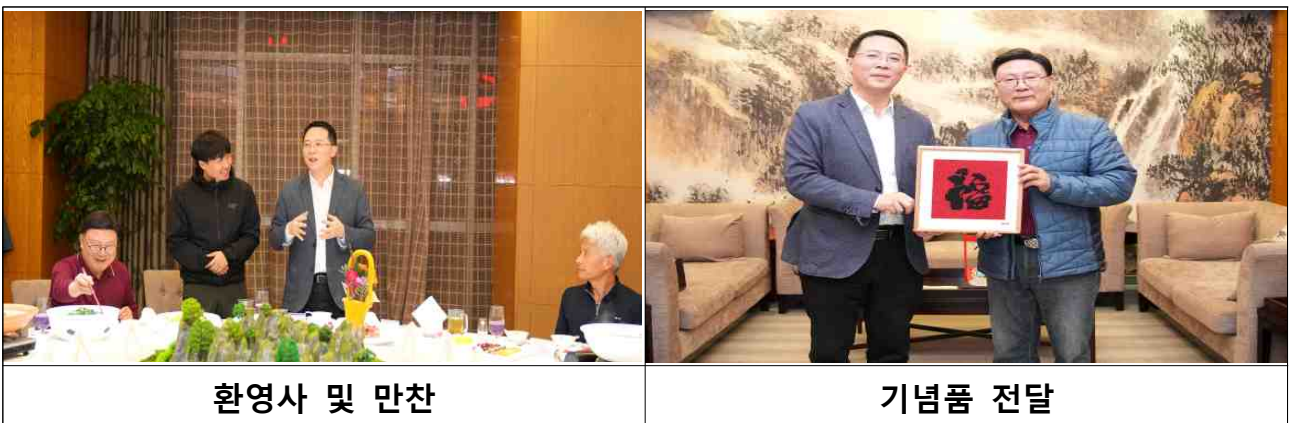
② 장자계시-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관 협력의제 논의

□ 방문개요

- 일 시 : 12. 5.(금) 17:00~
- 장 소 : 화천호텔 대회의실
- 내 용 :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방안 논의
- 면담 내용

발언자	발 언 내 용
장자계시 상무위원 우원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자계시는 세계적인 자연경관과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로, 국제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5.10월 전북 방문에서 한옥마을 등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전북의 문화관광 경쟁력에 깊은 인상을 받음. ·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관광·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관광객 유치 및 공동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함.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의장 문승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자계시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연경관과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문화관광 운영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관광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해 온 정책 경험은 전북자치도의 관광정책 수립 및 고도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큼. ·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문화·관광 분야에서 단순 방문 교류를 넘어 공동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인력·정책 교류, 민관 협력 사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및 의회 차원의 교류가 관광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 정례적 소통과 단계적 협력 확대 필요
문화안전소방위 부위원장 김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자계시의 관광 인프라 및 문화관광 정책에 높은 관심이 있음. · 향후 문화·관광 교류 확대 시 안전 관리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책 교류 및 협력 필요

□ 관련사진



① 지방거점대학 산학연 협력 사례 공유 및 교류방안 모색(호남대)

□ 방문개요

○ 일 시 : 12. 3.(수) 14:00 ~ 15:30

○ 장 소 : 후난성 호남대학교

○ 내 용

① 창사시는 후난성의 중심도시로, 특히 호남대학은 지역사회 기업,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로 산·학·연 협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함.

② 국가중점대학으로써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미국,일본, 프랑스 등 100여곳) 첨단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산업 혁신 역할 수행

○ 방문목적

①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전북형 인재 육성·일자리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호남대학교의 산·학·연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

② 공동연구·인적 교류 등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 방문기관 주요 현황



○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중국 국가중점대학으로 공학·과학·인문·경영 등 다학문 체계를 갖춘 연구중심 종합대학임. '중국 985·211 공정' 대상 대학으로 국가의 전략 연구역량을 집중 지원받고 있음.

○ 기원은 976년 '악록서원(岳麓書院)'으로, 중국 4대 서원의 하나이며 1903년 근대 대학으로 개편함. 2000년 이후 국가 전략대학으로 선정되며 공학·신소재·기술과학 분야의 연구역량 확대 현재는 30개 단과대학, 100여 개국과 국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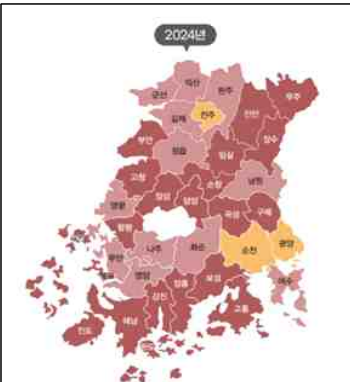
○ 산·학·연 통합 연구플랫폼 운영, 기업 협업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인재 양성 국제 공동연구교류 프로그램 다수 운영

○ 주요 연구 분야는 △지능형 제조·자동화 △신소재 및 탄소·에너지 소재 △데이터과학 △경제·경영 및 사회과학 △문화 예술 분야 등임. 특히 창사주저우상탄 도시군의 산업구조에 맞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에 강점이 있음

□ 시사점

- 호남대학교는 지역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산·학·연 협력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어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임. ▶ 중장년층 인구증가(창사시)
- 특히 기업 협업형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중심의 연구플랫폼 운영은 대학 연구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전북형 지·산·학·연 협력체계 고도화에 시사점을 제공함.
- 또한 100여 개국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 및 학생·교원 교류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 측면에서 벤치마킹 가치가 높으며, 전북 지역 대학과의 단계적 협력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대학 내 악록서원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모델로 운영한 점은, 대학이 지역 문화 거점이자 관광 콘텐츠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북형 지역 활성화 모델에 시사점을 제공함.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기준 지역소멸지수 통계치를 살펴보면 7개 시군(50%) <u>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고창</u>이 <u>소멸 고위험</u>으로 분류 - <u>익산, 군산, 완주, 김제, 정읍, 남원</u>은 <u>소멸위험지역</u>
* 전주 : 소멸 위험 주의 지역 - <u>전북자치도의 지역소멸위험도는 전남, 경북, 강원</u>에 이어 <u>전국 4번째</u>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 ※ 자료: 통계청 | |

- 인구조멸위험이 높아지는 주요원인은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지역적 당면 문제 직면 청년인구 유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재, 교육(대학), 정주여건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음.

-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핵심 거점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거점대학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청년 인구를 유지·유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자, 인재 양성·연구 개발·산업 연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
- 특히 산·학·연 협력 구조 중에서도 ‘학(대학)’의 역할은 인구 유지와 지역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력·신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와 기업 참여형 교육·연구를 통해 청년 인재의 학습-취업-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전북대학교는 LINC+사업단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육성 사업(LINC 3.0)에 참여하여 기업과 연계된 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캡스톤디자인, 표준형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등 학생 중심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LINC+사업단 : LINC+사업단은 전북대학교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및 현장실습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한 산학협력 전담 조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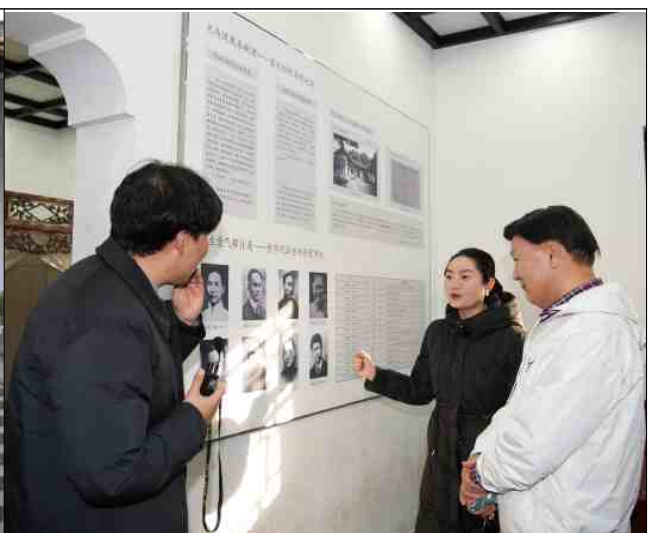
- 특히, 전북대학교는 거점국립대 육성책으로 지·산·학·연 협력 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5개기관, 8개기업과 MOU를 체결함.(‘25.11.)
 *5개기관(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8개기업(피지컬AI협회, NC AI, 나인이즈, 스피어AX, 인콘, 플리트, 이노덱, DH오토리드)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기획, 운영 등을 협력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전북대(학)-KIST(연) 공동플랫폼을 구축하여 KIST의 연구 역량과 전북대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음(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분야)
- 다만, 현재 전북대학교의 산·학·연 협력은 특정 학과·연구단·사업(LINC,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가 대학 내부 또는 일부 기업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기존 협력 성과를 도내 시·군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공동연구·현장실습 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소멸 고위험 지역 대상(개사촌) 지역 맞춤형 지·산·학·연 연계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교육 성과가 지역 단위로 확산 유도 필요
 - ▶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략과 연계하여 지자체-대학 공동 기획형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마련
- 아울러 호남대학교의 100여 개국 국제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자치도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 대학 파트너십을 단계적 구축
- 단기 교류 중심의 기존 국제교류를 넘어,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 △국제 공동 캡스톤디자인* △해외 기업 연계 인턴십 등 취업 연계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 동시 도모 *캡스톤디자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종합 현실 문제를 해결
- 호남대학교의 악록서원 사례는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 거점 및 관광 콘텐츠 생산 주체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우수 사례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 등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및 인접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대학 교육·연구·국제교류와 연계한 개방형 캠퍼스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유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문화 체험·학술행사 운영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문화 인지도를 동시 제고
- 이를 통해 대학을 지역 정체성과 정주 유인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전북형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유입 기반 구축 기여

□ 관련사진



악록서원 단체사진



호남대 관련 설명 청취

② 광역도시권(메가시티) 구축 협력 모델(장주담 도시군)

□ 방문개요

○ 일 시 : 12. 3.(수) 16:00 ~ 17:30

○ 장 소 : 장주담 도시군 박물관

○ 내 용

① 장주담 도시군은 창사·주저우·상탄 3개 도시가 광역교통망·산업벨트·정주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하나의 메가시티 도시권을 구축한 사례로, 도시 간 역할 분담과 연계발전을 통해 인구·산업 집중도와 경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② 장주담 도시군 박물관은 이를 전시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3D 프로젝터 등을 통해 창사-주저우-상탄의 역사, 주력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 창출

○ 방문목적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메가시티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

② 이에 장주담 도시군의 광역 교통체계 통합 모델, 도시 간 산업 기능 분담 전략, 순환형 생활경제권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전북형 메가시티 발전전략 및 광역권 도시·산업·교통 통합방안 도출

※ 정부주도 5극 3특 구상과 연계한 전북형 광역발전 방향 정립 활용

□ 방문기관 주요 현황



○ 2022년 12월 26일 공식 개관 : 장주담 도시군 박물관

○ 지역 발전 계획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

○ 디지털화·몰입형 전시관으로서, 장주담 도시권 건설 성과와 호남 고품질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

○ 디지털 샌드박스,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3D 눈으로 보는 볼륨 영상 등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권의 공간 구조, 교통 체계 및 전략 플랫폼을 입체적으로 구현

○ 장주담 발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시사점

- 장주담 도시군은 창사·주저우·상탄 3개 도시를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단순한 도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도시 간 기능 분담과 연계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메가시티 사례
- 특히 각 도시의 주력산업을 명확히 구분·특화하고(①창사: 첨단 제조업 및 디지털·신소재 ②주저우: 철도 및 항공부품, 신에너지 기술 ③상탄: 자동차 산업 및 신에너지차 클러스터) 교통·산업·정주 기능을 광역 단위 통합 설계함으로써 인구 집중과 산업 경쟁력 확보
- 또한, 주력산업 육성이 개별 도시 단위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 차원의 산업벨트·연구개발 체계로 연동되어 추진된 점은 광역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
- 장주담 도시군 박물관과 같은 통합 전시·소통 공간은 광역 발전 전략을 시민에게 가시화함으로써, 광역행정과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북은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150만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 장주담 도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①전주(행정·교육·문화), ②익산(식품·바이오(국가식품 클러스터진흥원)), ③군산(산업·항만·에너지-그린바이오) 등 도시별 주력산업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역할 분담 전략을 수립해야함.
- 또한 도시 간 산업 기능 분담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 철도·도로·대중교통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통근·통학·물류 중심)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차원의 산업벨트·공급망·연구개발 연계를 강화하여 전북형 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 기존 도심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광역권 내부에서 인구와 산업이 순환하는 **순환형 생활·경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는 5곳의 교통축에 대하여 광역 교통망을 구축(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 25.10.) - 그 중에서 새만금혁신축은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써 전주역-새만금 수변도시(76km)를 연결하여 새만금의 접근성을 특기할 만큼 개선할 수 있음. <p>*새만금 기업유치 등에 핵심적인 요소</p>
<p>※ 자료: 전북특별자치도</p>	

- 장주담 도시군 사례와 같이 **광역교통망은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전주 중심의 서부권 광역경제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전주 - 익산 - 군산 - 김제 - 완주 -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0~40분 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일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광역 단위 인구 유지와 산업 연계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새만금혁신축은 「5극 3특」 구상에서 서부권 산업·에너지 거점으로서 **핵심 축**으로, 광역교통망을 통해 기존 도심의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와 연계((ex)전북대-KIST-군산 이차전지 특화단지)하고 전북형 메가시티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실행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장주담 도시군 박물관 사례와 같이, 전북형 메가시티 비전과 도시 간 역할 분담, 광역교통·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전시·홍보하는 **광역도시권 통합 홍보·체험 플랫폼 조성**을 검토해야함
ex)새만금홍보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된 부지 부근에 **전북특별자치도 메가시티 홍보·체험관 운영**
- 이를 통해 도민의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제고하고, 광역행정 및 대규모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사진



③ 한국계 투자기업 운영사례 및 협력방안 모색

□ 방문개요

- 일 시 : 12. 4.(목) 10:00 ~ 11:30
- 장 소 : 이수전창 과학기술 유한회사
- 내 용
 - ① 한국 이수그룹 투자 기업으로, PCB(인쇄회로기판) 산업체인 전자 제조 회사
 - ② 현대화된 생산시설과 체인 관리로 효율적인 생산·R&D 연계 운영
- 방문목적
 - ① 첨단 제조업 및 산업단지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한중 협력 전자·PCB 산업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 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자·반도체·AI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반 첨단산업 정책 발굴

□ 방문기관 주요 현황



- 한국 이수그룹이 후난성 상탄시 구화경제 개발구에 설립한 전자·PCB 제조 전문 기업
- 반도체용 PCB, 이동통신장비용 전자부품, 자동차 전장용 회로기판 등 취급
- 핵심 외자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며, 현지 고용 창출, 산업협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

□ 시사점

- 이수전창 과학기술 유한회사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사례로서, 전자·PCB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 R&D - 공급망이 결합된 산업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단순히 생산라인 이전이 아닌, 현지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모델임.
- 특히 반도체·자동차 전장·통신장비 등 미래 수요 산업과 직결된 PCB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첨단 제조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현대화된 생산시설과 공정 자동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 추진에 참고사항임.
- 지역 산단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현지 인력 고용과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임.
- 아울러 한중 간 산업 협력 구조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적 애로사항은, 해외 투자기업 유치·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함.(면담 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건의)

◆ **(건의) 각종 규제(안전환경규제 등)로 인한 기업애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완화 절실**
(의장님)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추세임. 다만, 세계적으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치협상회의 면담 시 건의하겠음. **▶ 마오완춘 면담 시 해당사항 건의함.**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이수전창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자·반도체·AI·이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외자기업 유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새만금, 군산, 익산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반도체·AI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해야 함.
- PCB·전자부품 산업은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반 산업인 만큼, 전북형 첨단 제조업 밸류체인-소부장 산업 (소재 - 부품 - 장비)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전북TP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필수
- 또한 이수전창과 같은 해외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산업 단지 내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기업 전담 지원체계(원스톱 지원)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한중 산업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국제 산업협력 네트워크(중국·동남아·미국 등)를 확대하고, 전북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사진



④ 지역 바이오테크 우수기업 상호 협력 방안 모색(후난차이 생물과기)

□ 방문개요

○ 일 시 : 12. 4.(목) 14:00~

○ 장 소 : 후난성 창사시

○ 내 용


- ① 후난성 창사에 위치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의약품·건강 기능 분야 연구 및 바이오 기반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지역 유망 기업
- ②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분자 수준의 의약·건강 제품 개발
- ③ 후난대학교 전통의학과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산자원의 효능 및 성분 분석 연구 수행 등 산·학 공동연구 경험을 축적

○ 방문목적

- ①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바이오+헬스케어를 융합하는 아그로-바이오 분야에서 경쟁우위에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중심 바이오기업의 기술개발 체계 및 산·학 연계 모델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
- ② 신소재 발굴 기술 및 연구 협력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전북 지역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연구기관-기업 연계 활성화 전략 수립

▶ 바이오허브 조성, 특화단지 유치 재도전 등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전략 마련

□ 방문기관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사에 위치한 바이오기업으로, 천연물·식품 원료(산차유 등)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가공·제품화를 수행하고 있음.○ 천연물 추출·성분 분석 기술과 식물성 오일 대량 가공·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생산-수출○ 특히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산·학 협력 기반 바이오·바이오식품 산업의 허브 기업으로서 지역 산업과 외부 시장을 연결 역할 수행
---	---

□ 시사점

- 후난성 창사 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은 연구 중심의 바이오 기업 모델로, 의약·건강기능 분야에서 분자 수준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단순 제조 중심이 아닌 R&D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시사함.
- 특히 지역 대학(후난대학교 전통의학과 등)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산자원 효능·성분 소재화 연구를 수행한 부분은, 지역 자원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산·학 공동연구 모델의 우수 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학술적인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농생명 기반 산업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전북자치도는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 인프라를 이미 구축·확대 중으로, 이는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임.
- 다만, 현재 인프라는 각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개발 - 실증 - 사업화 - 창업으로 연계되는 구조 마련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후난성 바이오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바이오+헬스케어를 융합한 ‘아그로-바이오 산업 모델’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 특산 농산물·미생물·천연물 자원을 기능성 소재로 고도화하는 연구 중심 기업 육성 강화 필요
-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등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 간 산·학·연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분 분석 - 검증 - 시제품 개발 - 인허가 지원의 연계체계 마련 필요
- 이미 구축 중인 종자(seed velly, 김제), 미생물(순창정읍), 동물용의약품(익산), 곤충(남원), 식품소재(익산), 벤처캠퍼스(익산) 인프라를 기능별로 연계한 ‘전북형 그린바이오 밸류체인’으로 재구조화하여, 개별 거점의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함.

- 특히 2025년 선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보건복지부 지역 의료혁신 R&D 사업을 연계하여, 바이오 허브 조성 및 특화단지 유치 재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북테크노파크, 농생명산업지구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창업·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기존 농생명 산업 기반 위에 고부가가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도약 기대

□ 관련사진



동백 유차기름 관련 설명



바이오 분야 현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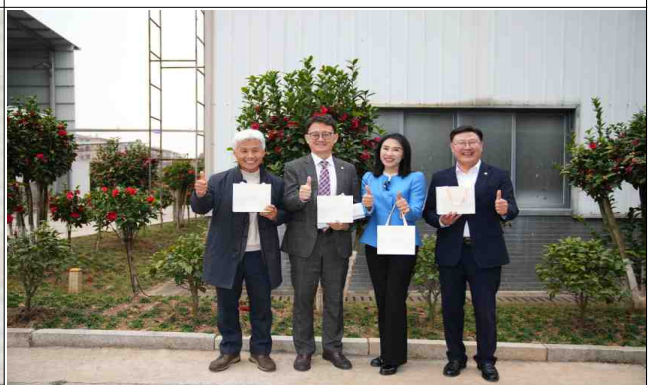
공정과정 시찰



기업 설명



우리도 바이오산업 설명



간부사진

⑥ 생태보전관광 연계 운영시스템 벤치마킹(국가삼림공원 등)

□ 방문개요

- 일 시 : 12. 5.(금) 10:00~
- 장 소 : 장가계 국가삼림공원 및 도룡농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 내 용 : 2000개 이상의 석회암 봉우리와 삼림공원 관리 등 생태보전 운영 체계 및 도룡농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시찰
- 방문목적 : 국가삼림공원의 생태보전과 관광산업 연계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북형 생태관광 및 자연자원 활용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생태자원 기반 관광·지속가능 발전 전략 도출 및 관광객 모집 홍보 방안을 논의

□ 시사점

-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은 엄격한 생태보전 원칙을 기반으로 관광 허용 구역의 차등적 관리로 자연 훼손 최소화 및 안정적인 관광 수익 창출
- 공원 관리 주체, 연구기관, 지역주민, 관광기업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구역 관리와 관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도룡농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은 종 단위 핵심 보호 전략과 과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환경교육 기능 동시 수행
- 생태자원 스토리텔링, 미디어 콘텐츠, 관광기업 연계를 통해 생태보전 가치를 관광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이 관광객 유입 및 인식 제고 기여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25.11.개원), 국립새만금수목원(27년 개원, 공정률 36%) 을 중심으로 ‘보전-체험-치유-교육’ 연계 전북형 생태관광 권역 모델 구축
- 보호구역·산림·습지 등 자연자원별로 이용 강도에 따른 구역화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 기반 마련
- 멸종위기종 및 핵심 생태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생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창출
- 국내·외 생태관광 성공 사례를 활용한 전북 생태관광 홍보 전략 및 관광객 모집 마케팅 강화,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 관련사진



국가삼림공원 방문1



국가삼림공원 방문2



도룡농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설명 청취



상품화 제품 설명

⑥ 관광상품 산업단지 및 야간체류형 관광 활성화 모델 연구

⑥-1 장가계 관광상품 산업단지 시찰

□ 방문개요

- 일 시 : 12. 6.(토) 15:00~
- 장 소 : 장가계시 관광상품 산업단지
- 내 용 : 장가계 관광상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 시찰
군성사석화 박물관, 토가족 직금 등 핵심 문화시설 견학, 토가족 직금, 향서 목조각 등 비물질문화유산 수공예품 전시·판매
- 방문목적 : 전북형 관광상품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 시사점

- 장가계 관광상품 산업단지는 관광·문화·상업 기능을 집적한 산업 단지형 모델로, 지역 관광상품의 전시·유통·체험을 일원화함
- **군성사석화 박물관**을 핵심 콘텐츠로 배치하여 예술 자산을 관광 상품 산업의 대표 거점시설로 활용함.
- 토가 직금, 향서 목조각 등 비물질문화유산을 단지 내에 집적하여 **전통 수공예의 현대적 상품화** 및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
- 민간 예술가·공방·상인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전시-판매-체험이 선순환구조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전북의 전통공예·문화예술 자원을 집적한 전북형 관광상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상품의 기획·제작·유통 거점 마련
- 예술가·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문화관광 산업 클러스터** 도입
- 한지, 목공예, 도자, 농촌 문화 등 전북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비물질 문화유산 관광상품 고도화 및 브랜드화 필요

□ 관련사진



⑥-2 야간관광·체류형 관광모델 연구(72기루 산업단)

□ 방문개요

- 일 시 : 12. 6.(토) 19:00~
- 장 소 : 장가계시 72기루 산업단
- 내 용
 - ①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운영 방식 시찰
 - ② 야간관광, 체험형 상업시설, 문화공연 연계 운영 사례 확인
- 방문목적 :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상업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 야간경관 연출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 벤치마킹

□ 시사점

- 72기루 산업단은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적 상업·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 문화관광 산업단지 모델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 주·야간 관광, 공연·체험·소비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시간대를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과 관광 소비 확대 효과를 창출함
 - ※ 야간 경관 조성 효과로 체류형 관광 소비 증가
- 공공 주도의 기반시설 조성 과 민간 참여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상업 수익 구조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됨.

□ 전북특별자치도 접목방안

- 최근 관광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방문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관광지 자체의 매력과 방문 수요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요소의 확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방문 추이				
연도	방문자수	숙박자 수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2023년	9,834만명	1,694만명	3,010분	2.76일
2024년	9,864만명	1,576만명	2,784분	2.78일

출처: 전북도, 한국관광데이터랩

- 특히 현재 전북투어패스는 주간 관광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녁 이후 시간대의 관광 활동과 소비를 유도하는 야간경관, 문화 공연, 지역 떡거리 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관광객의 체류 연장 및 숙박 효과는 제한적임.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전북의 전통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축제, 공연, 야간경관 조성 등을 연계한 체류형·야간관광 콘텐츠 확대를 관광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ex.)전북야행 등 차별화된 콘텐츠 마련)
- 공공은 기반시설을 조성, 민간은 콘텐츠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 관광산업 제도를 마련하여, 야간관광·공연·체험·떡거리 콘텐츠를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과 소비 유인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주 덕진공원은 대표관광지 1번지 사업의 하나로써 수변 공간과 녹지,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야간경관 연출과 문화 콘텐츠 결합이 가능한 도심형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덕진공원은 도서관·문화시설 조성 등 기존 공공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신규 대규모 개발 없이도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장 가능
- 전통문화, 공연(예: 분수쇼), 전시,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경관 개선과 콘텐츠 도입 등 단계적 조성이 적합하며, 이러한 야간 콘텐츠를 전북투어패스에 포함하여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전주 한옥마을과의 기능 분담을 통해 한옥마을은 주간 전통관광 중심으로 유지하고, 덕진공원은 야간관광 중심 공간으로 차별화함으로써 관광 동선을 확장하고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야간경관, 수변 문화공연, 팝업형 문화·관광상품 운영을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하여 체류형·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덕진공원을 시범으로 하여 향후 익산 미륵사지, 군산 근대역사 문화지구, 은파공원 등 도내 주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전북투어패스 연계형 야간관광 모델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문화 거점을 다각적으로 조성하고, 전북투어패스를 단순 할인형 관광상품에서 체류·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관광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북 체류형 문화 관광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사진



72기루 야간경관



72기루 내 토가족 전시관 시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중국 후난성 공식 방문(25.12.05. 전라일보)

全羅日報

HOME 정치 명품기획

전북도의회 대표단, 중국 후난성 공식 방문

주요뉴스가게 | 2025년 12월 05일 15:43

| - 광역경제권 모델·산학연 연계 시스템 집중 점검... 전북형 발전 전략 해법 찾기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을 받고 광역 경제권 구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지를 방문했다.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이날 3일부터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후난성 일정을 방문하며, 양 지역 간 상호협력 확대와 경제·문화·인문 교류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목표를 뒀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합 모안준 주석이 직접 초청장을 보내오며 성사됐다. 전북도의 후난성은 그동안 일적으로 교류해 왔지만, 이번 초청은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도의회는 이번 일정을 통해 광역 경제권, 그린바이오 산업, 지역 인재 육성 등 전북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 해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단은 후난성의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대학 연구기관·기업 간 연계 플랫폼, 지역 간 연계 발전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시찰한다. 특히 후난성이 추진하는 '장주반 도시권(長株潭 City Cluster)'의 광역 협력 모델은 전북이 추진 중인 '에가시티 전략'과 맞닿아 있어 대표단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광역 교통망·행정 통합·산학연 기반 구축에서 구체적 모델 부족을 지적받아 왔다. 후난성의 사례는 전북형 광역 전략에 바로 적용 가능한 비교대상으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이번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와 공유하고, 내년도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후난성의 산업 구조 재편과 연계 플랫폼 구축은 전북이 당면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례들"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전략들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모델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의 후난성 방문은 전북의 교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산업 전략에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수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장가계시 방문(25.12.08. 장가계시정부)

韩国全北特别自治道议会代表团访问张家界

记者 宋美慧 2025-12-08 14:32:49 | 6451

12月5日至6日，韩国全北特别自治道议会议长文承宇率代表团一行8人对张家界市进行友好访问。此次访问是对2025年10月湖南省代表团访韩的回访，旨在进一步落实双方共识，推动两地在文化旅游、经贸产业等领域的交流合作。



12月5日上午，代表团走进张家界国家森林公园，先后游览袁家界、天子山景区，实地感受世界自然遗产的地质奇观与生态魅力。形态各异的石英砂岩峰林与百龙天梯带来的视觉震撼，令代表团成员赞叹不已，频频驻足留影。下午，代表团前往张家界大鲵国家级自然保护区事务中心参观，了解当地在珍稀物种保护与生态可持续发展方面的举措。

12月6日，代表团继续参访行程。上午考察张家界天门山国家森林公园，体验高山景观与生态步道；下午走访张家界旅游商品产业园，了解当地旅游商品开发与特色产业情况。傍晚，代表团来到72奇楼文化旅游区，参观极具土家族特色的建筑，感受张家界夜间文旅融合新业态。

访问期间，张家界市市委常委、市委宣传部长吴文海及市政协相关领导与代表团进行了友好交流，就加强两地文旅合作交换了意见。

文承宇议长在访问期间对张家界的自然与文化资源给予高度评价。他表示：“张家界果然名不虚传，国家森林公园在生态保护与旅游发展之间取得了很好平衡，市民热情友善，城市富有文化魅力，是一个成功的典范。”他强调，全北特别自治道将以此次访问为契机，积极借鉴张家界在生态旅游管理方面的经验，推动双方在生态旅游管理系统共研、旅游产品联合开发、客源互推等方面的实质性合作，携手实现共同发展。

据悉，全北特别自治道是韩国重要的农业与文化地区，近年来积极推进文化观光、未来尖端产业等领域发展。张家界作为国际知名旅游目的地，正持续拓展与国外友好地区的交流网络，此次韩国代表团的到访，将为两地深化友谊、拓展合作注入新动力。（记者 宋美慧 实习生 周紫仪）

一审：高双志 二审：王姣 三审：高钱华

